



인도 은행산업 재편의 원인과 전망

채원영 연구원

■ 인도 은행산업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는 국영은행이 부실채권 증가 및 자본 확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도정부의 “포괄적 금융(Financial Inclusion)지원 계획” 등에 따른 은행 서비스 수요 증가로 민영 은행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인도 은행산업 재편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인도 정부는 2014년 8월, 저소득층 금융지원을 위해 “포괄적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함.
 - 2013년 현재 총 인구의 약 40%만이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는데 은행 서비스 이용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금융 인프라 부족임.
 - 인도정부가 2014년 8월~2015년 1월 1단계 “포괄적 금융지원 계획”을 시행한 결과, 금융 서비스 지점 신설¹⁾ 확대로 은행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었으며 금융 교육 및 상담센터 (FLC) 설립으로 금융 분야에 관한 무료 교육이 확대되었음.
 - 2018년 8월까지 시행 예정인 2단계 계획에서 신설된 계좌에 소액 생명보험을 제공하고 노령 연금 지급 등을 시행할 계획임.

■ 인도중앙은행 집계에 따르면 인도 전체은행 부실대출 중 국영은행 부실대출 비중은 83.5%를 기록했는데 이는 인도 정부의 개혁 추진에 따른 인프라 투자 및 기업의 대출 수요 증가와 대출 기업의 수익성 회복 지연, 인도 정부의 지속적인 은행지원 등이 원인임.

- 2013년 3월 기준 인도 국영은행 회수의문대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56.1%, 부실대출손실 증가율은 15.4%를 기록함.
 - 이로 인해 인도 국영은행이 바젤III의 은행자본 건전성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2조 4,000억 루피(약 42조 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²⁾
- 이는 2011~2013년에 지속된 산업 경기 둔화와 이에 따른 부실자산 급증, 인도 정부의 사회기반

1) 7,000개 은행 점포 입점, 20,000개 ATM 신설 등.
 2) 그러나 투자자들의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자본 조달에 어려움이 있음.

시설확충 정책에 따른 대규모 인프라 투자³⁾, 기업 수익성 회복 지연 등이 원인임.

- 인도 정부는 국영은행의 부실방지를 위한 자금 공급을 지속해왔으나 국영은행의 비효율적 지배구조 및 부실한 여신관리 지속으로 오히려 부실 대출이 증가하고 있음.

■ 인도 정부는 국영은행 부실을 막기 위해 국영은행 지주회사 설립을 검토하였으며 2014년 12월 국영은행의 신주 발행을 최대 1조 6,000억 루피까지 허용함.

- WSJ 및 FT(2014. 12. 11)는 인도 정부의 국영은행 신주발행 허용에 대해 국영은행 민영화의 시발점으로 평가함.

■ 인도 은행 서비스 수요 증가는 인도 민영은행의 영업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 인도의 가계 저축률은 높은 수준이나 가계의 은행활용도가 낮아 민영은행이 성장하지 못함.
 - 인도는 빈부격차가 매우 심하고 사회보장제도도 미비해 저소득층 가계는 스스로 미래를 대비하기 때문에 가처분소득대비 가계 저축률이 27%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은행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가 낮아 가계 저축이 은행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국영은행의 비중이 높고, 은행산업 내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인도정부는 “포괄적 금융지원 계획”을 통해 금융서비스 이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디 정부 출범 이후 2015년 4월까지 1억 2,500만 계좌가 신규 개설되었음.
- 2014년 4월 IDFC, Bandhan Financial Services가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신규 은행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기존 민영은행의 성장세도 본격화 되고 있음.⁴⁾

■ 향후 인도 국영은행의 민영화 추진, 인도경제의 고성장과 금융 서비스 보급 확대 등은 인도 은행산업의 구조 재편과 함께 은행업 전반의 성장세로 이어질 전망이다.

- 인도정부의 2015년 주요 개혁 조치에는 국영은행 구조조정 추진과 인프라 프로젝트 자본 조달 여건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음.
- IMF는 2015년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7.5%를 기록하여 중국의 6.8%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함.

(WSJ, FT, 국제금융센터 등)

3) 인도 민간 대형 건설사들도 인프라투자자과 관련된 대규모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4) FT(2014. 4. 2), "India opens up banking competition with two new licences".